

도전으로 혁신을,
혁신으로 미래를 ...

제15회 재인도네시아
범 한국 신발인의 날

일시 : 2025년 11월 14일(금)
장소 : 모던랜드 CC

MONTHLY KOFA

코파의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KOFA) 오는 11월 14일(금)
2025년 제5회 범 한국신발인의 날 행사 열린다.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2026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Vol. **134**
2025/11



KOFA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인니 정부, 부진한 소비 촉진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 검토



▲중부자카르타의 따나야방 시장 모습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세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비 촉진을 위해 부가가치세(VAT) 인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올해 세수 추이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5일 전했다.

뿌르바야 유디 사테와 재무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수 있는지 신중히 연구하고 검토할 것이며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물 경제 회복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이 계속 개선되며 서서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GDP 대비 세수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이 수치는 2024년에 전년도 10.3%에서 10.08%로 악화됐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GDP 대비 수입 비율을 2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설정했지만, 대

통령은 GDP 대비 세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2023년 선거 운동 기간 중 뿌라보워 진영은 2029년까지 이 비율을 13~14%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올해까지 세수 징수액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연간 세수는 목표액의 62%만 달성한 상태다.

현재 목표치 자체도 2025년 국가예산에서 설정한 초기 수치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차액이 100조 루피아를 넘는 다.

9월까지의 세수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법인세 9.4% 감소와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 징수액이 13.2% 감소했기 때문이다.

14일 같은 기자회견에서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차관은 감소의 근본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부처가 이전에 납부된 세금을 환급하는 세금 환급으로 인한 감소라고 설

명했다.

인도네시아 2021년 법률은 2022년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하도록 규정했으며, 올해 초 추가 인상(12%) 마감 시한으로 설정했으나 뿌라보워의 개입으로 중단됐다.

공식 부가가치세율은 여전히 12%로 설정되어 있으나, 국세청은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11% 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소장은 지난 1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계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8%로 낮추면 실제로 1조 루피아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하가 가계 소비 회복을 촉진해 소매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득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세금, 비과세, 관세 및 소비세 수입으로 구성된 총국가수입은 1,800조 루피아였으며, 국가 지출은 2,200조 루피아에 달해 371조 루피아의 적자(GDP 대비 1.56% 적자)를 기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2025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인니 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10% 인상 요구



▲2023년 11월 28일, 자카르타 곳곳에서 모인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5%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및 노동연맹 연합(KSP-PB)은 2026년도 최저임금을 8.5~10%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뿌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설정한 6.5% 인상률보다 높은 수치다.

노동당 대표 사이드 이크발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결정 제168/2023호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및 특정 지수를 고려한 공식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개월간 물가상승률 3~3.26% 사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5.2%를 단순 합산하면 8.46%로, 이를 반올림하면 8.5% 인상은 정당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빈곤율 및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발표한 점을 들어 공식에 사용되는 특정 지수를 기존 0.9%에서 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시에를리 인력부 장관은 지난 13일,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개념을 수립 중이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주 단위 최저임금 결정은 11월 1일에, 시·군 단위는 12월 1일에 정해진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며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정부가 기존에 사용한 공식에 따라 인상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식은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상대적으로 낮은 지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부령(PP) 제51/2023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그러나 이 정부령은 헌법재판소(MK) 판결로 무효화됐다.

경영자협회(Apindo) 노동위원회 보브 아잠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산정 공식이 네 차례나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은 신규 근로자에 대한 기준선 역할만 하고, 노사 간 임금 협상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올해 임금 인상률을 6.5%로 정했을 때, 경영자협회는 이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인도네시아 제품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경영자협회 신파 캄다니 회장은 노동 생산성, 산업 경쟁력, 국가 경제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부가 해당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었다. 이로 인해 대량 해고 발생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IJ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인도네시아, 2025년 이후 아세안 경제공동체 실현 재확인 AEC 전략 계획 2026-2030 수립 위한 국가 포럼 개최... “성장·회복탄력성 갖춘 경제 허브로”



▲9월 29일(월) 자카르타 ‘2025년 이후 아세안 경제 협력 시너지를 위한 국가 포럼’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이후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의 새로운 5개년 전략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제조정부와 외교부는 지난 9

월 29일(월) 자카르타 재무부 AA 마라미스 빌딩에서 ‘2025년 이후 아세안 경제 협력 시너지를 위한 국가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아세안 경제공

동체 전략 계획(AEC-SP 2026-2030)’의 방향성과 이행 방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AEC-SP는 통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아세안 단일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개회사를 맡은 에디 프리오 팜부디 경제조정부 경제협력투자 조정 담당 차관은 “2025년 이후는 아세안 내 국가적 조율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의 주도적 역할을 증진할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는 국가 경제 변혁 의제와 아세안 정책 방향 간의 시너지를 통해, 이번 전략 계획이 역내 경쟁력 강화, 재계 참여 확대, 그리고 경제 통합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실질적 도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고 약속했다.

이는 아세안을 2045년까지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아세안 비전 2045’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포럼은 대중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 부처, 경영자 협회, 학계, 일반 시민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 두 개의 심도 있는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패널은 ‘성장 잠금 해제: 아세안의 원활한 시장 이점’을 주제로, 개방된 아세안 시장이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혜택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산업 다운스트림화(고부가가치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아세안+1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전략적 활용이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두 번째 패널은 ‘아세안: 세계의 미래가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불확실성과 지정경제적 도전 속에

서 아세안의 경제 회복탄력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패널들은 글로벌 경쟁 심화, 공급망 교란 등의 위기 속에서 역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보비 크리스 시아기안 지역경제협력 담당 차관보는 폐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아세안 경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패널들이 제시한 다양한 관점과 자료가 향후 2025년 이후 아세안 경제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조정부는 앞으로 5년간 AEC 전략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대중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인포스트]

달러, 무역 갈등 및 미정부 섀다운 우려에 주간 하락세

글로벌 무역 마찰과 미국 경제의 약세 신호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하면서 달러는 17일에도 약세를 이어갔다.

미국 정부의 장기 섀다운으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차단되면서 달러 지수는 거의 3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은행(BOJ) 총재는 이번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이후 엔화는 강세를 유지했다.

페퍼스톤의 달린 우 리서치 전략가는 무역 갈등에 더해 연준의 독립성과 미국 정부 섀다운 우려가 겹치면서 달러가 ‘통화

약세 대비 투자’ 흐름에 취약해졌으며 투자자들은 쉽게 평가절하되지 않는 자산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연구원은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일 시나리오를 찾기 정말 어렵다”며 단일 국가 신용에 베팅하기보다 사람들이 금, 암호화폐 등 위험 헤지 수단을 통해 다른 자산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지수는 98.23으로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며 이번 주 0.6%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7월 말 이후 가장 큰 5일간의 하락폭이다.

달러는 일본 엔화 대비 0.2%



▲달러 (사진=안파라포토/Wahyu Putro)

약세를 보이며 150.12엔을 기록했다.유로는 0.1% 상승한 1.1701달러, 파운드도 0.1% 오른 1.3446달러를 기록했다.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는 고용 시장 상황에 대한 엇갈린 지표로 인해 이달 말 연준 회의

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신임 이사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스티븐 미란은 일부 동료들이 선호하는 수준보다 향후 회의에서 더 공격적인 금리 인

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준의 베이지북은 해고 증가와 중하위 소득 가구의 지출 감소 등 경제 약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금리에 대한 지지 근거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은 밤사이 격화되었으며, 중국은 미국이 희토류 통제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백악관의 규제 완화 요구를 거부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0.6% 상승한 108,534.66달러, 이더리움은 1.8% 오른 3,919.71달러에 거래됐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ALJ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UM GREEN NUSA

선택과 집중 ... 거광이엔지

천장재, 세면대 하부장, 양궁용품 전문 제조 업체로 인도네시아 진출



PT Geo Kwang Eng는 한국 법인 주식회사 거광이엔지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 시장조사를 완료하고 올해초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내딛었다.

거광이엔지는 충북 진천에 소재하고 있는 천장재, 세면대 하부장, 양궁용품 전문 제조 업체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천장재, 세면대 하부장, 양궁용품, 도로 맨홀, 자동차 범퍼, 전기 콘솔 박스, 대형 화분, 방산용 포장 박스, SMC 물탱크 등을 연구/개발 생산하고 있다.

충북 진천에 5,000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SMC/BMC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당사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의 기능과 형태에 맞게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또한 SMC 욕실 천장재를 초기 시장에 소개한 업체들 중 하나이다.

2019년에는 동종 복합소재를 활용한 올림픽용 양궁 용품을 개발해서 현재까지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미국 텍사스에 지



사가 있고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지사를 설립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주요 생산품으로는 SMC 천장재(욕실돔), SMC 타일 천장재, 세면대 하부장, 양궁용품 등이 있고, SMC/BMC 소재도 공장서 직접 개발, 생산하고 있다. 기타 제품으로는 도로 맨홀, 자동차 범퍼, 전기 콘솔 박스, 대형 화분, 방산용 포장 박스, SMC 물탱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SMC 천장재(욕실돔), 세면대 하부장, 양궁용품으로 진출 할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왜 인도네시아인가?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 시장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인도네시아의 천장재는 석고 80%와 PVC 15% 기타 5%로 되어 있고 SMC 소재 천장재는 전무한 상태이다.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오

는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기존의 천장재는 설치 후 단기간에 곰팡이, 박테리아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시장에 있는 천장재 제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되었다. SMC 천장재는 방수, 난연, 방충, 안티 곰팡이, 안티 박테리아 특성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단했으며 인도네시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중에 SMC 천장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SMC 천장재의 개념이 없어 시장 상황, 중국산 제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택 했다.

거광제품의 특징점 및 타 제품과의 차별화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천장재는 대부분 석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습기에 취약하다. 단기간에 변

되어 있는 천장재를 거광이엔지의 SMC 천장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도네시아 시장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거광이엔지의 회사사훈과 경영이념으로는 오늘 할일은 오늘 마무리하자, 선택과 집중, 그리고 꾸준하고 안정된 지속적인 경영을 해나가자는 모범경영철



학을 갖고 있다.

거광의 미래비전은?

시장에서 SMC 천장재를 접목, 확대해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거광이엔지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고질적인 천장 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제 막 두드린 인도네시아 시장이지만 거광이 갖고있는 제품에는 건강을 위한 인간존중의 철학이 담겨있는 제품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TEL : 0811 2851 4200

인스타그램 : luum, indonesia

색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원과 같은 세균에 노출되는 장소에서는 박테리아 등이 서식할 수 있다. 거광이엔지 SMC 천장재의 경우 방수, 난연, 방충, 안티 곰팡이, 안티 박테리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특성들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기능들이다. 현재 시장에 있는 천장재 제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방치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 윤 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식당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



운반하역기계
DOCK LEVELER

기술OK 신뢰OK 안전OK



삼성물산



인도네시아 발리, 금융 허브가 될 준비 되어 있는가



▲발리 사누르경제특구(SEZ) 전경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전 대통령 행정부가 구상한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 계획을 추진하면서 발리를 글로벌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관광지인 발리 섬이 그러한 역할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발리를 싱가포르와 홍콩에 필적할 만한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 해양투자조정장관이자 현재 국가경제위원회(DEN)를 이끌고 있는 루훗 반자이판이 지난 해에 제안한 것이다.

초기에 이 계획은 처음에 비즈니스 리더들이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배제하는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루훗은 패밀리 오피스 계획이 초기 단계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금 0% 정책(zero-tax schema)을 도입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훗은 지난 16일, “투자자들이 법적 확실성을 요구해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계획이 프로젝트 운영에서 신뢰성과 신뢰 구축의 중요

성을 강조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 설립자 레이 달리오의 지지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도 이 계획을 지지했고, 관계자들은 현재 제안서를 작성 중이며 연말까지 국회 승인 절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프로젝트가 발리를 인도 구자라트 국제금융테크 시티(GIFT city) 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DIFC)와 유사한 금융 허브로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비즈니스 구역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계속 겪고 있는 관료주의적 관행을 간소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면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제 은행, 자산 운용사 및 사모펀드 회사를 유치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벤치마킹해 해당 지역에 별도의 법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카르타베테랑국립개발대학(UPNVJ)의 경제학자이자 공공

정책 전문가인 아흐마드 누르히다얏은 법적 확실성, 투명한 거버넌스, 숙련된 인재 확보 없이는 이 계획이 “실체 없는 미사여구”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흐마드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처럼 독립적인 법률 시스템, 효율적인 중재, 글로벌 금융 인재 육성이 필요하며, 지속가능성, 문화 및 지역 조화를 고려한 계획 전환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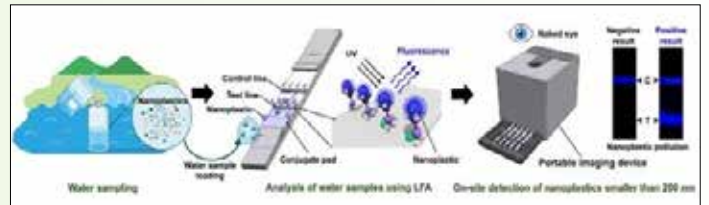
덴빠사르국립교육대학교(Un-diknas)의 경제학자 이다 바구스 라까 수아르다나는 발리에 금융 인프라 증권 거래소가 없고 기존 금융 중심지와 경쟁해야 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글로벌 금융 기관 유치로 발리의 지역 개발 은행인 BPD(Bank Pembangunan Daerah)가 위축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외국 전문가와 경쟁하기 어려워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섬의 생활비도 증가하여 전통 산업에 의존하는 발리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발리의 금융 및 스타트업 생태계, 디지털 유목민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어 발리 섬의 관광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수아르다나는 말했다.

발리가 금융 허브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정부가 글로벌과 로컬의 이익을 얼마나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는지에 달려있으며,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관광 부문에 오랫동안 의존해 온 발리 주민들은 금융, 기술, 법률,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자카르타 빗물, 유독성 미세플라스틱 입자 검출 ‘충격’ ” BRIN



▲초미세플라스틱 검출 기술 연구 이미지 [부산대 제공]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이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빗물에서 유해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무함마드 레자 코르도바 박사는 2022년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자카르타 전 지역에서 채취한 모든 빗물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입자들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공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되어 생긴 것”이라며, “의류의 합성섬유, 차량 타이어 마모, 쓰레기 소각, 노천 플라스틱의 분해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m²당 15개… 공기에서 하늘로, 다시 비로 돌아와

BRIN 연구진은 자카르타 해안 지역에서 채취한 빗물 1m³당 하루 평균 약 15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검출했다. 대부분은 폴리에스터(polyester), 나일론(nylon),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그리고 타이어 마모에서 생기는 폴리부타디엔(polybutadiene) 등 합성고분자로 구성돼 있었다.

레자 박사는 “플라스틱 오염이 이제 대기 순환 단계로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도로 먼지, 연기, 산업 배출로 공기

중에 부유한 미세플라스틱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다가 ‘대기 미세플라스틱 침적’ 과정으로 비를 통해 다시 지표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레자 박사는 “플라스틱의 순환은 더 이상 바다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며, 비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이 인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일반 먼지보다 훨씬 작은 입자로, 흡입되거나 음식·식수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 있다. 레자 박사는 “비가 독성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이 문제다. 이 입자들은 화학첨가제를 포함하거나, 다른 오염물질을 흡수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여러 연구에서도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산화 스트레스, 호르몬 교란, 조직 손상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적으로는 이러한 입자들이 하천·해양으로 흘러 들어가 먹이사슬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자 박사는 “시민들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하며, 무단소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인니 정부, 연말연시 국내선 항공료 최대 14% 인하



▲ 족자카르타 국제공항(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계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연말연시 기간 동안 항공료를 13%~14%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가격 인하는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의 여행을 위한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선 항공편에 적용되며, 할인된 항공권은 10월 22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교통부는 이러한 조치가 올해 하반기 국가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뿌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의 일환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간 연결성을 유지하고 대중의 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항공료 인하는 연말연시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편에 대한 유류할증료 인하를 규정한 교통부령 제50/2025호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 규정(PMK) 제71/2025호는 같은 기간 동안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석의 부가가치세(VAT)를 인하하고, 항공교통국의 법령에 따라 공항 서비스 단위의 비과

세 국가수입(PNBP)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소비자 부가가치세는 6% 포인트 인하되고, 비행기의 유류할증료는 2%, 프로펠러 비행기의 경우 20% 인하되며, 승객 요금과 공항 이용료는 모두 50% 인하된다.

항공 터빈 연료(aviation fuel)의 가격도 37개 공항에서 인하될 예정이며,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이번 항공료 할인 발표는 연말연시 휴가철을 맞아 여행 및 소매업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난 9월에 발표한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것이다. 올해로 네 번째인 경기 부양책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자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합변의 법률상식

디지털 전환 시대의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 법률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핀테크·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확산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PT PMA(외국인 투자회사)로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데이터 보호법(DPDP, Data Protection and Privacy Law)과 전자정보거래법(EIT, Electronic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Law)을 이해하고,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한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데이터 보호 규제 현황

- ① 개인데이터 보호법(DPDP, Data Protection and Privacy Law, 2022 제정)
 -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유사한 구조: 데이터 주체의 권리, 처리 원칙,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 처벌 규정
 -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내부 DPO를 지정해야 함
 - 국외 이전 제한: 민감정보를 해외 서버에 저장할 경우 정부 승인 또는 보안 인증 필요
- ② 전자정보 및 거래법(EIT, Electronic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Law) 개정
 - 전자 서명 및 전자문서 법적 효력 강화
 - 사이버 범죄 처벌 범위 확대: 랜섬웨어, 피싱, 해킹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2.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

- ① 데이터 유출 및 벌금 위험

- 최대 매출의 2%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 침해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 신고 의무
- ② 클라우드 서버의 국외 이전
-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 요구: 일부 산업(은행, 통신)은 인도네시아 내 데이터센터 사용 의무
- ③ 서드파티(제3자) 관리
- 외주 IT 서비스·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 공급업체의 보안 사고로 인한 연대 책임 가능성

3. 법적 리스크 대응 및 내부 통제 전략

- ①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
 - 수집 → 저장 → 처리 → 파기 전 단계별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Privacy Impact Assessment) 실시
 - 최소 수집 원칙 준수 및 익명화·가명화 기술 도입
- ②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구축
 - ISO/IEC 27001 또는 NIST CSF(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Cybersecurity Framework) 준거 정책 수립
 - 침해 사고 대응 시나리오 및 모의훈련 연간 1회 이상 실행
- ③ 계약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 서드파티와의 데이터 처리 계약(DPA, Data Processing Agreement) 체결: 의무·손해배상·감사권 명시
 - 내부 규정과 인사 정책에 데이터 보호 항목 포함

4.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시사점

- ASEAN 역내 데이터 이동 협약(Cross-Border Data Flow): 역내 데이터 이동 표준화 추진
- EU의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한국의 PIPA(개인정보보호법) 등 타국 규제 비교를 통한 스탠더드 매핑(Standard



변호사 함상욱

Mapping) 필요

- 다국적 기업은 'One Policy, Multi-Compliance(단일 정책, 다중 규정 대응)' 전략으로 지역별 추가 규정을 계층화

맺음말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만,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 법률 위반은 기업의 신뢰와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PT PMA는 인도네시아 현지 규정과 글로벌 최적조건을 결합한 통합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HAMINDO/BAP LAW FIRM,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제, 건설 관련 법무, 광산 관련 법무, 형사 법무
- 한국 부경 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MA UNI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I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PEN-GADI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KEMEN-KUM 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PERKHAPPI BNS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봉제협회(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외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인도네시아, 37.6° C 기록적 폭염... 11월 초까지 이어진다

태양 겉보기 운동과 호주 몬순의 합작... “건강 관리 각별히 유의해야”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최근 인도네시아 전역이 최고 기온 37.6° C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이하 기상청 BMKG)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태양의 위치 변화와 호주 몬순의 영향을 지목했으며, 이러한 고온 현상이 10월 말을 넘어 11월 초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태양은 더 가까워지고, 구름은 사라졌다” ... 폭염의 원인은?

지난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구스완토 BMKG 기상 부청장은 이번 폭염의 복합적인 원인을 상세히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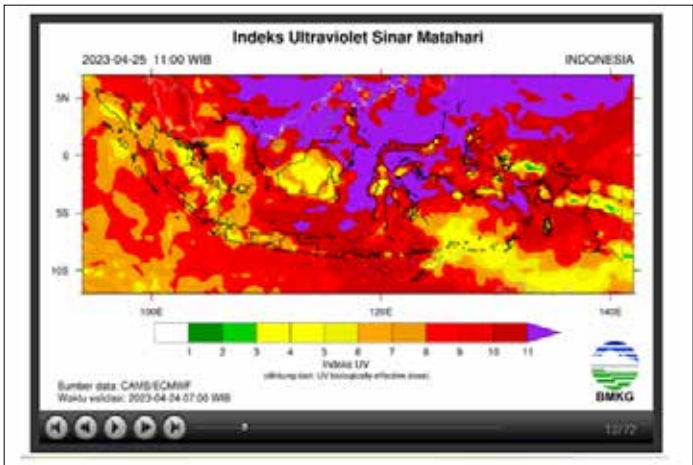
첫 번째 핵심 원인은 ‘태양의 겉보기 운동’이다. 구스완토 부청장에 따르면, 매년 10월이 되면 태양의 겉보기 위치가 지구 적도 남쪽으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중남부 지역인 자바섬, 누사틍가라, 칼리만탄, 파푸아 등이 다른 시기보다 훨씬 강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두 번째 원인은 ‘호주 몬순’의 영향이다. 호주 대륙에서 발원한 몬순이 동풍을 타고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면서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를 대량으로 몰고 왔다. 이 건조한 공기는 대기 중 구름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강력한 복사열이 구름이라는

‘양산’의 방해 없이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하면서 기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구스완토 부청장은 “강렬한 햇빛과 건조한 공기의 결합은 체감 온도를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나타나는 연례적인 패턴이지만, 올해는 그 강도가 예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자바·파푸아 37.6° C 기록... 전국이 ‘찜통’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국적으로 35° C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드리 람다니 BMKG 공기상국장은 특히 누사틍가



▲인도네시아 자외선 지수. 자료 인도네시아 기상청. 2023.04.25.

라, 자바섬 전역, 서부·중부 칼리만탄, 남부 술라웨시, 파푸아 일부 지역이 폭염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2일에는 서부 칼리만탄의 카푸아스 홀루 등 3개 지역에서 36.8° C를 기록했으며, 불과 이틀 뒤인 14일에는 서자바주 마자렝카와 파푸아주 보벤디굴에서 최고 기온이 37.6° C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안드리 국장은 “대기 상층부에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우세하게 자리 잡고 구름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폭염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 폭염 속 ‘천둥·번개’ 동반한 국지성 소나기... 변덕스러운 날씨 주의보 BMKG는 다만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낮 동안 달궈진 지표면으로 인해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일부 지역에 국지성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마트라, 칼리만탄, 자바, 파푸아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 강한 돌풍을 동반한 급격한 기상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BMKG는 공식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 예방 ▲낮 시간대 강한 직사광선 노출 자제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및 모자 착용 등 기본적인 건강 수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구스완토 부청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인포스트]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6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6년(丙午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도서관/인쇄
광 개 토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3002 9090 / 91
pt.kwanggaeto@gmail.com

-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개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10권부터 가능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정겨운 우리말



들마 : 가게 문 닫을 무렵
예)들마에 손님들이 몰려왔다.
떡살 : 떡을 눌러 갖가지 무늬를 찍어 내는 판. 또는 그것으로 찍어 나타나는 무늬. 흔히 나무로 만드나 간혹 사기로 만든 것도 있다.
예)떡살이 없어서 떡에 무늬를 넣지 못했다.
떨꺼둥이 : 의지하고 지내던 곳에서 가진 것 없이 쫓겨난 사람
예)그녀는 작은 잘못으로 그만 주인집에서 쫓겨나 떨꺼둥이가 되었다.

때전 : 한 동아리가 되어 무리를 이룬 사람들
예)상대편 때전이 많을지라도 겁낼 것 없다.
동기다 : 모르는 사실을 깨달아 암시를 주다.
예)태호는 눈치가 빨라서 두어

마디만 뚱겨도 금세 알아차린다.
뜨악하다 :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
뜸베질 : 소가 뿔로 물건을 닥치는 대로 들이 받는 것.
띠앗 : 형제나 자매 사이의 우애심.
예)우리집은 형제가 넷인데 띠앗이 좋은 편이다.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인니 생산성 위기, 동남아 최저 수준... 정부 효율성 제고에 나서



▲eMOA 전기오토바이 제조 현장 (사진=PT.Baterai Listrik Motorind)

인도네시아의 노동 생산성은 동남아시아 최하위권 수준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 미흡한 인센티브, 지역 불평등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고, 정부는 인도네시아 노동 생산성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14일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은 2.6%에 불과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이웃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이 지난 7일 발표한 '2025-2029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은 정책 조정, 산업 개입, 인력 개발을 통해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세계 5대 경제국으로 도약시키

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랜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른바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티라 소장은 "주요 과제가 관료주의, 정책 불확실성, 비효율성, 특히 과도한 장관 및 공무원 수"라고 지적하며, 정치 낙하산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 비효율성과 인프라 격차가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ICOR(증분자본생산비율)이 6을 넘는 이유는 인허가 절차가 길고 각 부처가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산업 지역에서 항구나 공항으로 이어지는 물류 경

로가 없는 것처럼 인프라가 산업 중심지와 단절된 경우가 많아 물류 비용을 상승시키고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또 다른 문제다. 지난주 전국 각지 주지사들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지원금(TKD) 예산 삭감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예산 삭감과 지급 지연이 개발 및 필수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마는 이러한 재정적 제약이 건축 정책 및 지역 예산 삭감과 맞물려 지역 간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러니 생산성 향상은 커녕 손상된 도로 보수조차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비마는 직업 교육 개혁과 훈련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생산성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강사의 질과 교육 인프라에도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계에 대한 투자 감소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 투자자들이 종종 노동력은 가져오지만 제한된 기술만 도입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를리 인력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인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여전히 낮다는 점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가개발계

획청(Bappenas) 행사에서 그가 제시한 통계표에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에서 인도네시아가 아세안(ASEAN) 평균에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생산성 성장을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태국보다 약간 앞섰지만 말레이시아에는 살짝 뒤처졌으며, 인도는 훨씬 앞서고 중국이 지역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총요소생산성(TFP) 뿐만 아니라 정책, 투자 환경 등과 연결된 'X 요인'이 중요하며, 분명한 것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과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약한 생산성이 산업의 회복탄력성을 저하시켜 여러 분야의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가용 자원을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인도네시아의 역량은 여전히 과제라고 덧붙였다.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에 생산성 센터를 재가동하고 직업훈련센터에 '인재·혁신 허브'를 구축하며 기업 대상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00명의 생산성 전문가를 양성하고 500명의 생산성 전문가를 인증했다. 내년에는 맞춤형 노동 생산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생산 가능 인

구비율이 70% 이상 되는 '인구 보너스'를 진정한 경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려면 생산성 향상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가개발계획부 라흐맛 뽀부디 장관은 이 마스터 플랜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 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강화가 목적인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의 핵심은 높은 경제 성장과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생태계 구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생산성에 대한 의지와 문화가 부족하다며, 생산성 향상은 기술 도입, 사회구조 개혁,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생태계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은 해외에서는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는다고, 기술 혁신과 인센티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생산성 향상에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며, 드론을 사용하는 인도 농부들이 수작업보다 0.4헥타르를 2~3배 빠르게 작업할 수 있으며, 노동력은 로봇 제작으로 전환되면서 효율성과 소득이 모두 증가한다고 말했다. 라흐맛은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중간소득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erkins

Cummins

YANMAR

MITSUBISHI

FAW

DEUTZ

mtu

ISUZU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 매
임 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bakchan@daum.net

동남아 여행 경고등… 인도네시아서도 한국인 잇따르는 납치·감금 사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한국인 피살 사건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취업 사기를 미끼로 한 조직적 범죄 외에도, 평범한 여행객을 노리는 납치 및 감금 사건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세계적인 휴양지로 각광받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아 여행자들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택시인 줄 알았는데” …일상 속에 도사리는 납치의 그림자
지난 10월 18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2001년 인도네시아 롬복(Lombok) 섬을 여행하던 중 아찔한 납치 위기를 겪었다. 당시 길리(Gili) 섬으로 향하기 위해 항구로 이동하던 그는 택시에 탑승했다. 그러나 차량은 목적지인 항구가 아닌, 인적이 드문 산기슭으로 방향을 틀었다.

본능적인 위협을 감지한 기사는 차가 소달구지를 피해 서행하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헬프 미(Help me!)”를 외치며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필사적으로 인가를 향해 달려가자, 잠시 머뭇거리던 차량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만약 정식으로 허가받은 택시였다면 승객을 두고 달아날 이유가 없었다. 당시 길리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우마차였던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비정상적인 접근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벌어지는 납치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순간에 누구에게나 닥



▲당시 길리섬에서는 우마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사진/성연재 기자]

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다. 몇 년 후, 기사는 회사 후배로부터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사례를 전해 들었다. 후배의 남편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여행사 지사에서 근무하며 신규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한 오지를 탐사하던 그는 동료 2명과 함께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납치범들은 1인당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며 이들을 위협했다. 다행히 전문 협상가(Negotiator)가 긴급 투입되어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수백만 원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담들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지역 여행 시, 여행객들이 언제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당시 기사가 자카르타에서 현지 특파원을 통해 “그 여행 경로는

현지인조차 위험해서 가지 않는 곳”이라며 단호하게 경고했다. 이 한마디는 안전 정보 없이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일깨우는 교훈으로 남았다.

여행 전문가들, “위험 요소 사전 숙지가 안전의 첫걸음”
여행 전문가들은 낯선 여행지, 특히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낯선 이가 건네는 음료나 음식을 무심코 받아 마시거나,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택시 및 개인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호주의 저명한 여행 정보 매체 ‘스마트 트래블러(Smart Traveller)’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납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숙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주변 환경과 개인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유지: 항상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 자제: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는 등 주변 상황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 숙소 보안 상태 사전 점검: 예약 전 숙박 시설의 잠금장치, CCTV 설치 여부 등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 예측 불가능한 동선 유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등 일정한 이동 패턴을 만들지 않도록 동선을 다양화하

는 것이 좋다.

▲ 외딴 지역 단독 방문 금지: 특히 혼자 여행할 경우, 인적이 드물고 고립된 장소는 피해야 한다.

▲ 재산 및 사업 관련 대화 금물: 여행 중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온라인 노출 최소화: 소셜 미디어(SNS)에 실시간

위치 정보나 상세한 개인 신상을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 여행자 보험은 납치나 몸값(Ransom) 지불과 관련된 항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특수 보험 가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연락처를 반드시 숙지하는 등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안전한 여행의 전제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인포스트]

나이키, 공동 창립자의 이름으로 본사 명칭 변경 새로운 이름, 동일한 주소.

나이키의 본사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미 오리건주 비버튼의 ‘원 보워먼 드라 이브’에 위치한 나이키 월드 헤드쿼터가 공동 창립자 필 나이트를 기려 ‘필 H. 나이트 캠퍼스(Phil H. Knight Campus)’로 공식 명명됐다.

나이키의 현 CEO 엘리엇 힐은 사내 공지문을 통해 “이번 변화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낸 한 사람의 비전을 기리는 헌사이자,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상기시키는 상징이다”라고 전했다.

1960년대, 필 나이트와 빌 보워먼은 ‘블루 리본 스포츠



(Blue Ribbon Sports)’를 설립했고, 1971년 나이키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이후 나이키는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나이트는 2004년까지 CEO로 재임하고 2016년까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다. 그의 회고록 〈슈독(Shoe Dog)〉은 출간 직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업점: (주)동부경원기계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이갑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러닝화하면 퓨어셀” …뉴발란스 1.2조 역대급 매출 눈앞

올해 러닝화 매출 전년 比 30% ↑ …퓨어셀 라인 70% 성장
러닝에 진심인 뉴발란스…마라톤 향한 독심이 꽃피운 전성기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2025 런 유어 웨이 서울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달리고 있다. [사진=이랜드월드]

뉴발란스가 러닝화 흥행에 힘입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했다. 국내에서 16년째 러닝 문화를 장려해 온 뉴발란스의 독심이 꽃피운 전성기다. 14일 이랜드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뉴발란스의 매출액은 1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6000억원을 밑돌던 매출액은 2021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더니 2023년 9000억원,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역대급 매출액의 원동력은 러닝



▲이랜드 뉴발란스 퓨어셀 레벨 v5. [사진=이랜드월드]

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뉴발란스 전체 러닝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특히 퓨어셀 시리즈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상승하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퓨어셀 시리즈는 뉴발란스가 기술력을 집약해 만든 대표 러닝화 라인으로, 반발탄성과 경량성을 강화한 ‘러너 맞춤형’ 쿠셔닝이 특징이다. 뉴발란스는 2011년부터 러닝화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워왔다. 같은 해 첫 마라톤 행사 ‘뉴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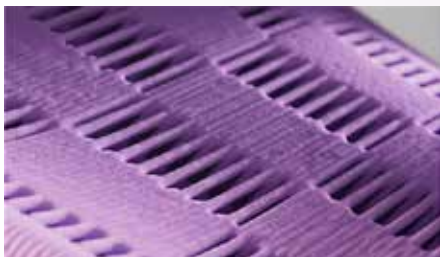
이스(NEW RACE)’를 시작으로 러닝 커뮤니티와 동호회를 지원하며 러닝 문화 확산에 집중했다.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 마케팅 채널로 발전시킨 것이 차별점이다. 뉴발란스는 러닝 문화를 하나의 ‘도심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 ‘런 유어 웨이 서울 10K 레이스’는 뉴발란스의 러닝 문화 전략을 보여주

는 대표 사례다. 행사 당일 폭우가 쏟아졌지만 8000여명의 참가자가 완주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배우 유이, 진선규,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심으뜸 등 셀럽 러너들이 참가했고, 방송인 노홍철이 사회를 맡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러닝 커뮤니티에선 “흠뻑쇼, 워터밤 같은 느낌”이라며 호응을 얻었다. 마라톤 열기만큼 매출도 수직 상승 중이다. 올해 열린 ‘런 유어 웨이’ 참가 패키지는 전국 12개 직영점에서 판매됐으며, 3000세트가 당일 완판될 정도로 인기였다. 뉴발란스는 이런 기세를 몰아 올해 매출액이 1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21년도 매출액(6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두 배나 뛰는 셈이다. 러닝 인구 증가세도 뉴발란스의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러닝 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GPS를 활용해 지도 위에 그림을 그리는 ‘아트런(Art Run)’ 문화가 확산하는 등 러

닝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뉴발란스는 러닝 인기에 발맞춰 ‘경복궁 댕댕런’, ‘여의도 구마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런꾸런 클래스’ 등 러닝화를 직접 꾸미는 체험형 행사를 열기도 했다. 블루보틀 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의 협업도 진행했다. 뉴발란스의 러닝화 경쟁력은 오랜 기술 연구에서 비롯됐다. 1956년 브랜드 2대 오너 폴 키드가 사명을 ‘뉴발란스 정형외과 연구소’로 변경한 이후, 뉴발란스는 신발 구조와 착화감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랜드 뉴발란스 관계자는 “뉴발란스는 신발과 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며 러닝화 아카이브를 오랫동안 쌓아왔다”면서 “러닝 문화 저변을 넓히기 위해 감성까지 고려한 러닝 세션, 마라톤 행사 등을 비롯해 러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뉴스 24

나이키 에어 맥스 1000 ‘라일락’ 공개 차세대 스니커의 또 다른 컬러가 등장했다.



나이키와 젤라펠트가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에어 맥스 1000의 새로운 컬러 ‘라일락’을 공개했다. 이번 스니커는 지난 8월, 글로벌 데뷔 이후 세 번째로 선보이는 컬러로, 젤라펠트의 독자적인 3D 프린팅 플랫폼을 이용해 더욱 미래적인 실루엣으로 제작됐다.

어퍼는 레이스리스 구조를 채택해 이음새 없는 일체형 구조로 제작됐으며, 측면에는 톤 온톤 스우시와 ‘AIR’ 브랜딩이 자리했다. 또한 에어 유닛에는 핑크 컬러가 적용돼 퍼플 톤의 바다와 대비를 이뤘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젤라펠트의 3D 프린팅 기술력 확장과 함께, 나이키의 혁신적인 퍼포먼스 디자인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능적 실험성과 미니멀한 비주얼이 결합해 차세대 스니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과물로 예상된다. 나이키 에어 맥스 1000 ‘라일락’은 오는 10월 21일, 당첨자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10월 16일부터 젤라펠트 공식 웹사이트에서 래플 응모가 가능하다. HYPEBEAST

스폰지밥이 신은 신발을 본뜬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프라이치트 출시 스폰지밥도 아디다스를 신어요.

〈네모바지 스폰지밥〉과 아디다스의 협업 스니커가 공개됐다. 이번 협업은 애니메이션 속 스폰지밥이 신는 구두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협업으로 완성된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프라이치트는 극 중 스폰지밥이 집게리 주방에서 신는 구두를 그대로 옮긴 듯한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특히 미끄럼 방지를 위한 트랙션 패턴은 실제 주방 환경을 연상시키며, 블랙 가죽 갑피 위에 화이트 콘트라스트 슈레이스와 스폰지밥 얼



굴이 새겨진 텡 엠블럼을 더해 유쾌한 디테일을 완성했다. ‘스폰지밥 x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프라이치트’의 공식 발매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후 아디다스 공식 채널을 통해 세부 정보가 안내될 예정이다.

툽스 목 금형 (툽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툽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툽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툽스금형, 특수 칼금형

“걸을 때마다 민망한 소리, 수치스러워” ... 집단소송 터진 운동화

전통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의 아성을 넘보던 한 스포츠 브랜드가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걸을 때마다 나는 신발 소리가 문제가 됐다. 18일(현지 시각) 미국 CBS 뉴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리건주 연방법원에 스위스 스포츠 브랜드 ‘온(On)’의 온러닝을 상대로 소장이 제출됐다.

소장에는 “걸을 때마다 들리는 크고 민망한 소리로 불편과 수치심을 겪고 있다”며 “소음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담겼다.

문제가 된 제품은 ‘클라우드텍(CloudTec)’ 기술이 적용된 운동화다. 이 기술은 밑창

에 육각형·타원형 공기 주머니를 배치해 충격 흡수와 착화감을 높이지만, 이 구조가 고무와 마찰하면서 소음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클라우드5’ ‘클라우드6’ ‘클라우드몬스터’ ‘클라우드러너’ 등 총 11종이다. 가격은 140~180달러(약 20만~25만원) 수준이다.

온러닝 측은 문제의 소음을 “제품 결함이 아닌 일반적인 마모”로 분류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웹사이트를 통해 제기된 일부 고객 문의에 대해 “습기, 마찰, 인솔(신발 안창) 압력 차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일시적인 소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음은)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소송인단 측은 “온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기술 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사기적 영업 행위’ 및 ‘기만적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인단 측은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소비자는 코코넛 오일을 밑창 구멍에 바르거나 안창을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소음을 줄이는 자체 해결법을

공유하고 있다.

온은 2010년 철인 3종 선수 올리비에 베른하르트가 설립한 러닝화 전문 기업이다. 세계 80여 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한 해 약 300만 켤레 이상의 러닝화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 세계 러닝 열풍이 불면서 기존의 스포츠 신발 강자였던 나이키, 아디다스 등

대신 기능과 패션을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은 온러닝이 트렌디한 신발로 떠오르기도 했다.

국내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이 발표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러닝코어’ 거래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30대 여성 사이에서 스위스 브랜드 온러닝이 나이키 등을 제치고 구매 1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



▲온러닝 운동화/공식 홈페이지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